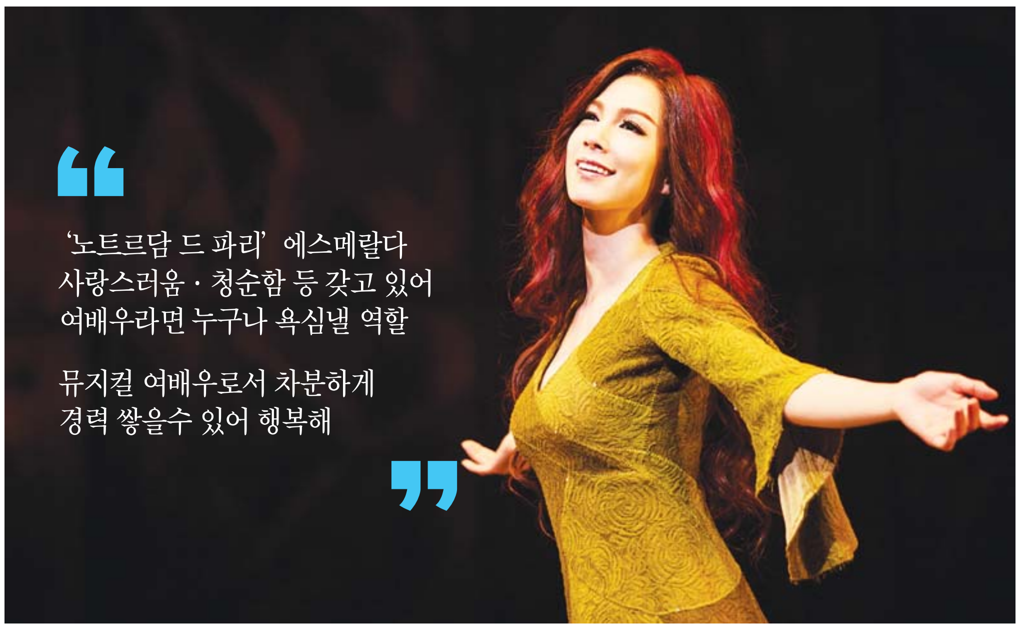
가수에서 뮤지컬 배우로 **린아**

“난 14년차…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죠”

“뮤지컬배우로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갈 수 있어 감사해요. 가수로 먼저 데뷔했는데, 그 이미지에만 머물지 않아서 다행이죠.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뮤지컬배우 린아는 올해 데뷔 14년차인 가수다. 2002년 듀오 ‘이삭앤지연’으로 첫 음반을 냈고 그룹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를 거쳤다.

가요계에서는 무르익은 가수지만 뮤지컬에서는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는 기대주다. 그로테크스하면서도 섹시하고 청순한 매력을 동시에 지닌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8월21일까지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의 에스메랄다 역으로 호평 받으며 또 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다.

“비극의 주인공이지만 에스메랄다는 많은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선망의 대상이죠. 그 만큼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사랑스러움, 청순함, 경건함. 여자 뮤지컬배우라면 누구나 욕심낼 법하죠. 캐스팅(홍광호 · 케이윌 · 문종원 · 마이클 리 · 김다현 등)도 화려한데 이분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끼고요.”

2011년 ‘젊음의 행진’으로 뮤지컬에 데뷔한 뒤 2013년 ‘머더발라드’에서 가창력과 섹시함을 갖춘 배우로 눈도장을 받았다. 이후 2014년 말 ‘지킬앤하이드’의 투시로 대형 뮤지컬에 입성, ‘맨오브라만차’, ‘오케피’, ‘뉴시즈’ 등 수작들에 잇따라 출연하며 존재가치를 높였다. 시원스런 외모와 가창력이 일품으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뮤지컬배우 성공기를 앞장서 쓰고 있다.

하지만 매작품 초기마다 슬럼프가 온다고 털어놓았다. “매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뮤지컬배우로서 이 역에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히죠. 겁도 많이 나고. 그럴 때마다 주변 분들의 희망을 불어넣어주세요. 최근작인 ‘오케피’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 만큼 배웠고 행복했죠.”

에스메랄다 역시 초반에 힘들었지만 중반을 넘긴 지금은 집시 여인의 자유로움을 사랑하게 됐다고 즐거워했다. “에스메랄다는 모든 것과 사랑에 빠지고 그 모든 것을 포옹하죠. 1막에서는 그 행복함과 자유로움이 너무 좋아요. 2막은 비극적이지만 그만큼 저 역시 좀 더 성숙해져가는 걸 느끼죠.”

‘노트르담 드 파리’는 치열하고도 숙명적인 러브스토리다. 사랑의 얽힘 속에 다양하게 드러나는 사랑의 속성을 고전적으로 풀어냈다. 에스메랄다를 가운데 두고 콰지모도, 주교 프롤로, 근위대장 페뷔스가 펼치는 3색의 사랑노래 ‘아름답다’는 그 절정을 이룬다.

린아 역시 ‘사랑의 다양한 입장’을 그린 뮤지컬이라고 해석했다. “다양한 인물에 감정 이입을 할 수 있으니 몇번을 봐도 지겹지 않죠. 지방 투어(진주 · 천안 등)에서도 그런 사랑의 입장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실제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인 린아는 뮤지컬 무대만 오르면 돌변한다. “맡는 배역에 따라 제 성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남편(뮤지컬배우 장승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호호.”

에스멜라다는 ‘모든 걸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아이’라고 해석했다. 공연 막바지에 역시 에스메랄다를 닮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어려운데 그랬으면 좋겠다”고 부끄러워하면서도 활짝 웃어보였다.

/김민근 기자

한지소재로 만든 다양한 조형 작품들 ‘한눈에 살펴보기’

‘한지, 스며들다’ 전시회
오늘부터 21일까지
전통문화전당서 열려
생활에 밀접한 작품 선봬

한지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조형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주한지조형작가협회(회장 송수미)는 3일부터 21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한지, 스며들다’ 전시회를 연다.

전주한지조형작가협회 회원들은 우리문화를 한지에 담아내기 위해서 한지의 본고장인 전주에 모여 작품의 모양과 색에 대한 구상과 탐구를 해왔다.

또한 이번 전시에 참가한 49명의 작가들은 한지의 현대적 활용 모색을 위해 해마다 전시, 세미나, 벤치마킹에 참가하고 있으며, 한지문화산업의 창조 · 발전적인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서 한지소재가 내 주변, 나아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게끔 다양한 예술 분야에 응용해 작품을 제작했으며, 이를 통해 관객들이 이색적인 경험을 하게 했다.

송수미 전주한지조형작가협회 회장은 “협회는 해마다 전시를 통해 한지문화와 이를 접목한 응용예술이 폭넓게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색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한지와 예술이 결합함으로써 일상과 호흡하는 예술이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자 전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무더운 여름, 부드러운 감성과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서정적 전통의 미와 독특한 현대의 미를 간직한 한지조형작품 관람을 통해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시 오픈식은 3일 오후 5시 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기타 전시 관련 문의는 전주한지조형작가협회 010-4718-3010으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완주 송광사, 9일부터 백련 나비채 행사 열어

완주 송광사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 및 연지 일대에서 ‘2016년 송광 백련 나비채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송광사의 백련이 만개한 칠월칠석을 기해 열리는 것으로, 참가자 모두가 사랑을 함께 ‘나누고’, 탐진치 삼독심을 ‘비우고’, 진리로 가득 ‘채우는’ 나비채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겼다.

13일 본 행사에는 ‘동물의 왕국’ 공연으로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프랑스 작곡가 카미유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가 원제목인 이곡은 14개의 짧은 음악으로 구성된 관현악곡이다. 이날 무대에는 바리톤 김재일이 함께 한다. 이외에도 베트남 이주민과의 결연식, 소원풍선 날리기, 베트남 문화 홍보전, 금산중고 관악단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9~14일 상설행사에는 연차 시음 및 다례체험, 연 음식 나눔행사(중식 공양), 연꽃 사진전 등이 14일 이주민 법회에는 베트남 불교 법회의식, 베트남 전통음식 ‘퍼’ 나눔 만발공양 등이 마련된다. 문의 063-243-8091.

/정해은 기자

제2회 운묵회전을 마무리하며 운묵회 문상용 회장과 회원들이 작품들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운산’ 정용안 선생의 제자들 ‘오묘한 묵향의 잔치’ 열었다

운묵화전, 정읍서 성황리 마쳐

‘운산’ 정용안선생의 애제자들로 구성된 운묵회원들의 전시회가 알찬 수확을 남기고 마무리됐다.

운묵회(雲墨會)는 1일 “제2회 운묵회전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정읍여성문화관 2층 전시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운묵회전에는 회장을 맡고 있는 청암 문상용씨(정읍시보건소장)의 정약용의 시인 ‘절구’와 미우당 송영례씨의 ‘묵란’ 청전 오강열씨의 ‘방춘기’ 해촌 김상선씨의 ‘대인춘풍지기추상’ 미당 김선님씨(정읍시고화보건진료소장)의 ‘전지하’ 송계 송현철씨의 ‘진인사대천명’ 등 14명회원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선보여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운묵회원들의 정신적 스승이자 멘토인 운산 정용안선생은 ‘진문술 선생시’를 찬조작품으로 출품해 의미를 더했다.

서화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적 성취감을 선보이는 운묵회전을 바라보는 지역 예술계의 시선은 늘 범상치 않았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운묵회전은 ‘운산’ 정용안선생의 문하생들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작업에 몰두해 예술의 가치를 성취한 창작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펼친 묵향의 축제였다.

운묵회는 50여년 서예의 외길을 걸어오면서 20여년이 넘게 정읍사 전국서화협회를 이끌어온 운산 정용안(鄭鎔安)선생이 있어 가능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8월 3일〉

▷쥐띠
48년생: 타인으로 인해 금전이 나가는 운이나 덕으로써 돌아온다.
60년생: 외부적인 일에 이득이 많이 따르니 긍정적으로 진행하라.
72년생: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으니, 오늘 만나는 사람을 조심하라.
8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과 시비가 따를 수 있다.

▷소띠
49년생: 중요한 약속은 저녁시간을 활용하라.
61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운이다.
73년생: 처음에는 힘들고 고달프나 후반에는 좋으니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85년생: 윗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좋다. 무리한 강행은 삼가라.
62년생: 부지런히 움직여라.
74년생: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진행하라.
86년생: 동기간과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긴다.

▷토끼띠
51년생: 평소에 익숙한 물건이라도 조심스럽게 다룰 것.
63년생: 의욕만 앞서고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니 때를 기다리면서 자중하라.
75년생: 혼자서 힘들다면 타인과 함께 행동하라.
87년생: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대하지 마라.

▷용띠
52년생: 평소에 익숙했던 일이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가 따르니 조심하라.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이 따른다.
76년생: 경쟁자가 나타나나 자신의 능력이 더 뛰어날 때가 있다.
88년생: 일의 능률이 올라가지 않을 때 조언을 구하라.

▷뱀띠
53년생: 사람으로 인해 신경이 거슬리는 상황에 처하나 가벼운 농담으로 상황을 잘 모면하라.
65년생: 식록이 있는 운이니 출타를 하거나 모임을 하기에도 좋은 운.
77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화합에 신경 써야 하는 운.
89년생: 윗사람을 보조해야 하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시비수가 따르니 부드러운 언행이 필요한 운이다.
66년생: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78년생: 문서를 주고받거나 서류를 정리하기에 좋은 운. 윗사람을 보조하는 일에도 좋다.
90년생: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려 하지 마라.

▷양띠
55년생: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 있겠다.
67년생: 자신도 모르게 고집을 피우게 되는 운이다.
79년생: 정신도 육체도 바쁜 운이다.
91년생: 밖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

▷원숭이띠
56년생: 금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나 해결되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68년생: 어려운 일이 있다면 윗사람에게 상담을 하라.
8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
92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은 좋으나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닭띠
57년생: 동기간과 모임을 가지면 기쁜 일이 생기는 운.
69년생: 해와 달이 밝으니 외부와 내부가 편안하게 이어질 것이다.
81년생: 처음의 고생은 나중의 편안함을 위한 것.
93년생: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운.

▷개띠
46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먼저 솔선수범하여 베풀면 후에 이득이 따를 것이다.
58년생: 윗사람을 대할 때 겸손함을 잃지 마라.
70년생: 외부적인 일에 대한 성과가 좋으니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82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사소한 실수는 넘겨줘라.
59년생: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71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83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하루를 보내게 될 듯.